

# 洗濯管理에 影響을 미치는 家族環境變因에 關한 研究

## A Study on the Analysis of Family Environmental Variables Affecting Laundering Management

숙명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 이 정 우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ssociate Prof. : Lee, Jung Woo*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학과  
전임강사 : 최 동 숙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Kang-Won University  
Instructor: Choi, Dong Sook*

### 目 次

I. 緒 論	2. 調査對象
1. 問題의 提起	3. 資料收集 및 處理
2. 研究目的 限界 및 用語의 定義	III. 研究結果 및 論議
3. 假設 設定	1. 調査對象의 一般의 事項
4. 理論的 背景	2. 調査結果 및 論議
II. 研究 方法	IV. 要約 및 提言
1. 道具의 作成	參 考 文 獻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quire how the family environmental variables are to influence on the behavior, time of laundering and laundering facilities in the urban households.

Independent variables are limited to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the age of the youngest child, the age of the home maker, and her educational level, family income, and the type of housing in which the family lives.

The total of 222 samples were thus selected. The data was analyzed on the basis of statistical method such as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chi-square, and F-test.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1) Hypothesis 1 is rejected, because the behavior of laundering management is not influenced by six family enviromental variables ;

2) the facilities for laundering management are affected by the home maker's age ( $p < .05$ ), her educational level ( $p < .001$ ), family income ( $p < .001$ ), the housing of the family ( $p < .01$ ) among six family environmental variables ; therefore, Hypothesis 2 is partially proved ;

3) the time for laundering management is affected by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 $p < .01$ ), the age of the youngest child ( $p < .05$ ), the home maker's educational level ( $p < .001$ ) among six family environmental variables ; therefore, Hypothesis 3 is partially proved.

## 緒 論

### 1. 問題의 提起

家事勞動의 社會化가 어느정도 進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부분이 家庭에 의존하고 있으며 家庭管理者의 老苦가 뒤따른다. 또한 社會化된 부분일지라도 家庭의 補助的 役割遂行이 없이 이루어지는 家事勞動의 분야는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家庭內에서의 家事勞動의 遂行은 중요하다고 본다. Steidl<sup>1)</sup>은 家事勞動의 遂行은 끊임없이 존재하고 변화하는 문제이며 今後에도 家庭生活에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思料된다고 지적하였다.

家事勞動의 價値面에 있어서도 家庭內의 活動中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家事勞動은 육체적 單純勞動으로서 創意力이 必要없는 일이라고 평가된다. 모든 家庭에서 家事勞動에 대한 낮은 評價로 인하여 家事勞動의 罷業에 들어간다면 家庭은 물론 모든 社會·經濟的 機能까지 마비될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社會變化에도 불구하고 家事勞動의 重要性은 더 論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多様な 活動을 포함하는 家事勞動의 內容과 範圍를 限定하기는 곤란한 問題이나 洗濯은 그 內容이나 範圍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정우·최동숙<sup>2)</sup>의 洗濯時間에 대한 調査에서도 전체 家事勞動時間의 23% 卽 1.6時間을 洗濯하는데 소모하는 것으로 調査되었다. 따라서 洗濯은 家事勞動中 時間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또한 單位時間當 Energy 消費面으로도 부담을 주는 作業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속<sup>3)</sup>, Weaver<sup>4)</sup>는 食事管理面보다 衣生活管理面의 勞動條件에 더 적은 觀心을 가지며 뒤떨어졌다고 報告했고, 윤복자<sup>5)</sup>, 이

정우·최동숙<sup>2)</sup>의 研究에서도 洗濯施設設備水準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 陳述한 바와같이 家事勞動가운데의 洗濯管理面의 비중과 重要性을 考慮할 때 이에 대한 관심의 부족, 낮은 施設設備水準, 낮은 價値의 부여 등은 家庭生活의 發展을 저해하는 要素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에 對한 보다 深層的인 研究가 必要하다고 본다.

從來의 研究는 대체로 全般的인 家事勞動을 中心으로 이루어졌으며 洗濯에 관한 先行研究로서는 洗濯空間<sup>6)</sup>, 洗濯機 活用問題<sup>7)</sup>, 洗濯機 性能에 대한 비교<sup>4)</sup>, 洗濯設備과 洗濯頻度<sup>8)</sup>에 관한 연구등에 局限되고 있을 뿐이며 최근 본 研究者들에 의해 洗濯管理에 대한 具體的인 研究로서 洗濯管理行動, 洗濯施設設備, 洗濯管理時間 등에 관한 研究가 進行되었다. 그러므로 보다 深層的인 研究를 위해 洗濯管理에 影響을 미치는 家族環境變因에 對한 研究는 必要하고도 중요한 研究라 하겠다.

### 2. 研究目的·限界 및 用語의 定義

#### 1) 研究目的

本 研究의 目的은 都市家庭의 洗濯管理 즉 洗濯管理行動, 洗濯施設設備, 洗濯管理時間을 調査하고 家族環境變因中 어떤 變因들이 洗濯管理에 影響을 미치는가를 分析하여 보다 効率的이고 合理的인 洗濯管理를 하는 方向으로 유도하고자 함에 있다.

具體的인 研究內容은 다음과 같다.

① 6가지 家族環境變因 즉 家族數, 막내자녀의 연령, 주부의 연령, 學歷, 收入, 住居形態등에 따라 洗濯管理行動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② 6가지 家族環境變因에 따라 洗濯施設設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6 가지 家族環境變因에 따라 洗濯管理時間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研究의 限界

本 研究는 첫째, 서울에 거주하는 都市家庭을 표집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국의 都市家庭으로 一般化하기에는 限界가 있다. 둘째, 文獻考察 및 質問紙의 응답결과에만 依存하였다. 셋째, 洗濯管理에 影響을 미치는 家族環境變因으로 家族數, 막내子女의 年齡, 主婦의 年齡, 學歷, 收入, 住居形態의 6 가지 面으로 限定하였다.

3) 用語의 定義

洗濯管理行動; 洗濯物 收去에서 부터 洗濯後 정돈에 이르기까지의 過程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活動을 의미한다. 즉 그 기준이 좀 더 까다롭고 복잡하며 洗濯管理에 대한 要求水準이 높아 時間과 에너지 소모를 많이 要하는 行動을 예문으로 提示하여 「언제나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 「언제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등 3 가지 形態로 나누었다.

洗濯施設設備; 效率의 洗濯管理에 必要한 모든 施設과 設備을 의미한다.

洗濯管理時間; 洗濯物 收去에서부터 건조후 정리정돈에 이르기까지의 時間을 의미한다.

3. 假設 設定

都市家庭의 洗濯管理 즉 洗濯管理行動, 洗濯施設設備, 洗濯管理時間을 從屬變因으로 하고 이에 影響을 미치는 家族環境變因인 家族數, 막내子女의 年齡, 主

婦의 年齡, 學歷, 收入, 住居形態등을 獨立變因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假設을 설정하였다.

[가설 1] 6 가지 家族環境變因에 따라 洗濯管理行動에 差異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6 가지 家族環境變因에 따라 洗濯施設設備에 差異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6 가지 家族環境變因에 따라 洗濯管理時間에 差異가 있을 것이다.

上記한 假設을 圖式化하면 아래와 같다(圖 1).

4. 理論的 背景

李朝時代의 여성은 한 人間으로서 待接받기 보다는 오히려 勞動力 提供者로서 認識되어 왔으며 一生의 計는 오직 부지런함에 있다고 하였으나 일부 實學思想家들은 科學的 思考에 의해 새로운 方法을 추구하도록 主張했고 합리적인 家事作業條件을 갖추는 일이 꼭 必要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社會·經濟的背景으로 볼 때에 사실상 實生活에 있어서는 대개가 過去의 習慣을 그대로 固守할 수 밖에 없었다<sup>9)</sup>. 社會·經濟적으로 高度로 發展하고 여성의 教育水準이 향상된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우리나라 主婦들은 家事勞動에 대한 責任과 愛着意識이 농후한 반면에 計劃이나 科學性에 입각한 合理性을 찾아서 쉽게 할려는 것이 아니라 편하고 안일한 것만을 택하고자 하는 家事處理에 있어서의 모순된 두개의 價置意識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問題點을 안고 있다<sup>10)</sup>. 이러한 價値意識이 洗濯管理에도 나타나서 家族의 洗濯物을 家族의 要求水準에 맞추어 적절하게 提供하겠다는 意識은 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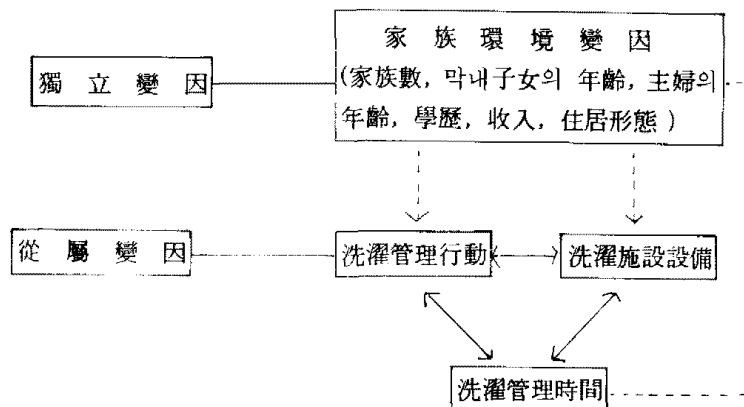


圖 1. 假設 設定의 概念 圖式.

※ 3 가지 종속변인간에 상관관계는 이정우·최동숙의 “도시가정의 세탁관리에 관한 연구” 참조 (대한가정학회지, 21권 3호).

나 그 과정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구태 의연한 方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都市主婦들은 가사노동을 되도록 힘들이지 않고 쉽게 하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비하여 洗濯過程은 많은 時間과 에너지가 소모된다. 美國의 非就業主婦들의 의류손질시간에 대한 調査結果를 보면 Wiegand는 가사노동 7.4時間中 1.6時間, Walker는 가사노동 8.0時間中 1.3時間, Hall and Schroeder는 가사노동 7.3時間中 1.3時間을 消費한다고 研究 報告하였다<sup>10)</sup>. 國內研究에서도 강진주外 2人은 洗濯時間으로 40分 정도, 윤복자는 非就業 主婦들이 의류손질에 平日 0.9時間, 週末 1.8時間을 消費한다고 研究 報告하였다. 에너지면에서도 休息時보다 增加한 비율을 보면 손으로 옷을 비틀어 짜는데 增加한 비율은 138.0%, 기계로 짜는데는 99%, 바닥에 있는 그릇에서 옷을 집어 넣는데는 184.0%, 테이블위에 있는 그릇에서 옷을 집어 넣는데는 118.0%로 增加한다고 하였다<sup>10)</sup>. 또한 家事勞動分野中에서 洗濯管理部門은 選好度가 낮으며 主婦 스스로의 洗濯管理에 대한 낮은 價値 判斷에 의해 소홀히 하고 觀心을 적게 두는 家事勞動中의 하나이다. Steidl과 Bratton의 研究에 의하면 一般的으로 調理 育兒와 같은 生産的 創造的인 것은 즐거워하고 접시닦기, 청소 다림질같이 단조롭고 時間消費的인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sup>11)</sup>. 그러나 이기숙은 洗濯場 施設의 便利함이 衣生活에 關係되는 家事勞動選好性에 有意的인 變因으로 研究된<sup>12)</sup> 점으로 미루어 便利한 施設設備을 갖추었을때 주부들의 선호성 여부는 달라질 것으로 思料된다.

서영숙·조필교<sup>13)</sup>의 연구에서 洗濯管理 分擔實態를 보면 주부가 45%, 고용인이 15% 擔當하는 것으로 他家族의 分擔比率이 적게 나타났다. 이와같은 洗濯管理는 家族의 協助가 적은 分野이어서 주로 주부가 擔當하고 있다. 그러나 家事勞動은 家庭管理者인 主婦가 직접 家族를 통솔하여 全家族이 家事에 參與할 때보다 나은 家族關係가 形成되며 家族이란 共同意識이 투철해지는 것이다<sup>9)</sup>.

우리나라 主婦의 家庭管理行動에 關한 研究<sup>9)</sup>에 의하면 家事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實踐的이고 行動的인 作業의 管理行動에 대해서는 否定的 이었으며 人間關係가 스며들어 있는 作業에 대한 觀心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洗濯은 쪼그리고 앉아서 한다」

라는 응답에 거의 100%가 그렇다고 답하고 있는 것은 과학적인 측면으로 볼때 100%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대체로 教育程度가 높을수록 作業的인 管理行動點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家族數, 主婦의 年齡은 作業의 發展 즉 作業을 좀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는 것과는 아무런 關係가 없었다.

家事作業은 主婦의 價値判斷에 의해 行態가 달라지며 行態는 環境 즉 주위 施設設備에 의해 相互關聯되어지고 動機如何에 따라 疲勞의 程度 또한 달라진다. 이정우·최동숙<sup>2)</sup>의 研究에 의하면 洗濯管理行動과 洗濯施設設備間에 正的인 相關, 洗濯管理時間과 洗濯施設設備間에 逆相關을 보인다고 보고 되었다.

子女數와 막내子女의 年齡은 家事勞動時間과 깊은 關係가 있어 子女數가 많을수록 막내子女의 年齡이 어릴수록 家事勞動이 增加하고 있다<sup>14)</sup>. 洗濯時間과 相關되는 變因으로서 子女數가 어느 變因보다 높은 相關을 보였고 막내와 만이의 年齡은 낮은 相關을 보였다. 子女의 年齡은 어릴수록 洗濯에 더 많은 時間을 소모했고 子女年齡이 높은 경우에는 특별한 種類의 옷손질에 더 많은 시간을 소모했으며 住居形態, 社會經濟的 水準, 主婦의 學歷등도 낮은 相關을 나타냈다<sup>15)</sup>.

이와같이 洗濯管理에 影響을 미치는 家族環境變因에 대한 研究는 극히 일부에 국한되어 있다.

## 研究 方法

### 1. 道具의 作成

本 研究에 使用된 質問紙의 內容은 一般的 事項, 洗濯管理行動, 洗濯施設設備, 洗濯管理時間의 4部分으로 構成되었다.

洗濯管理行動은 15問項으로 洗濯物 수거에서 부터 정돈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管理行動을 整理하여 作成하였고 洗濯施設設備는 10問項으로 우리의 實情을 감안하여 作成하였으며 洗濯管理時間은 3問項으로 실제 소요시간을 기록하도록 作成하였다. 質問紙 形態상 洗濯管理行動과 洗濯施設設備는 Likert Style에 의한 3點 尺度로 측정하였다. 妥當度 및 信賴度 檢證을 위해서는 家庭管理 전공교수 및 大學院 卒業生 3名의 의견을 듣고 修正 補完한 후 主婦 20名을 對象으로 pretest를 實施하였으며 半分法에 의

해 相關계수를 산출하고 Spearman Brown 公式에 의 해 교정했다. 그 結果 신뢰도 R 값이 洗濯管理行動 0.77, 洗濯施設設備 0.71로 나타나 신뢰도를 증명하였다.

2. 調査對象

本 調査는 調査對象의 고른 분포를 위해 서울에 居住하는 유치원, 國民學校, 高等學校, 大學校學生을 둔 家庭의 主婦를 標集對象으로 하였다.

質問紙 部數는 400 部를 배부하여 302 部를 회수하였으며 미비한 質問紙를 제외하고 222 部를 본 研究의 分析資料로 選定하였다.

3. 資料 蒐集 및 處理

本 質問紙의 調査를 위하여는 事前에 各급 학생들 에게 잘 주지시키고 그들의 어머니에게 기입하도록 하였다.

調査期間은 1982年 11月 1日~5日에 豫備調査를, 11月 15日~30日까지 本調査를 實施하였다. 資料의 研究內容別 統計處理方法은 다음과 같다. 一般의 事項은 實數 百分比를 洗濯管理行動과 洗濯施設設備는 各 問項에 대해 「보기 1」은 3點 「보기 2」는 2點, 「보기 3」은 1點을 주어 點數로 換算하고 洗濯管理時間은 실제시간으로 계산해서 平均 標準편 차, 百分比를 算出하고  $x^2$ , F-test 검증을 하였다.

研究結果 및 論議

1. 調査對象의 一般의 事項

家族數는 5~6名이 52.3%를 차지하여 서울 平均 家族數 4.97人<sup>16)</sup>과 큰 차이가 없다. 主婦의 年齡은 30, 40代가 대부분이며 主婦의 學歷은 高卒이 42.3%로 가장 많았고 總收入은 30~40만원이 29.7%로 서울의 가구당 月平均收入 295,101원<sup>17)</sup>에 비해 웃도는 水準이었으며 68%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20%의 主婦가 副職이 있었으며 89.6%의 主婦가 직접 洗濯을 擔當하고 있어 本 研究의 응답이 실제 경험을 토대로 했을 것으로 思料된다.

2. 調査結果 및 論議

1) 洗濯管理行動

洗濯管理行動의 尺度平均은 2.35點( 尺度平均 만점

표 1. 調査對象의 一般의 事項

(N=222)

	구 분	f	%
가족 수	2명 이하	8	3.6
	3~4명	68	30.6
	5~6명	116	52.3
	7명 이상	30	13.5
막내 자녀의 연령	만 0~2세	30	13.5
	만 3~5세 (학령전)	62	27.9
	만 6~11세 (국민학생)	81	36.5
	만 12세 이상 (중학생이상)	45	20.3
	없다	4	1.8
주부의 연령	만 25세 이하	7	3.2
	만 26~30세	14	6.3
	만 31~40세	120	54.1
	만 41세 이상	81	36.5
주부의 학력	국졸 이하	24	10.8
	중졸	44	19.8
	고졸	94	42.3
	전문대졸 이상	60	27.0
총 수입	30만원 미만	40	18.0
	30~40만원 미만	66	29.7
	40~55만원 미만	54	24.3
	55~70만원 미만	40	18.0
	70만원 이상	22	9.9
주거형태	아파트	40	18
	단독주택	151	68
	연립주택	31	14
주부의 직업유무	없다	177	79.7
	있다	45	20.3
세탁담당자	주부	199	89.6
	가정부 또는 파출부	16	7.2
	기타	7	3.2

■ 2. 세탁관리 행동의 문항별 반응 및 척도평균

(N = 222)

	언제나그렇게한다		그렇게할때도있고안할때도있다		언제나그렇게하지않는다		M	S. D.
	f	%	f	%	f	%		
1. 세탁물이 생기는대로 빨래를 한다.	84	37.8	122	55.0	16	7.2	2.31	.60
2. 입었던 옷은 별로 더럽지 않아도 세탁한다.	76	34.2	112	50.5	34	15.3	2.19	.68
3. 세탁하기 전에 세탁물을 분류해서 세탁한다.	133	59.9	75	33.8	14	6.3	2.54	.61
4. 물세탁이 불가능한 옷만 세탁소에 맡기고 대부분은 집에서 세탁한다.	194	87.4	23	10.4	5	2.3	2.85	.42
5. 애벌빨래를 한다(세탁기 사용 않는 가정) 세탁기로 돌리기전 또는 돌린 후에 손으로 때가 많이 있는 부분을 비벼준다(세탁기 사용 가정)	37	16.7	50	22.5	14	6.3	2.23	.68
6. 세제 사용량을 고려하지 않고 세제를 많이 사용한다.	103	46.4	100	45.0	19	8.6	2.38	.64
7. 섬유에 따라 차이를 두지만 대체로 많이 비빈다.	160	72.1	60	27.0	2	0.9	2.71	.47
8. 속옷등의 삶을 빨래는 모두 삶는다.	160	72.1	62	27.9	0	0	2.72	.45
9. 빨래를 헹굴때 비누거품이 완전히 없어지도록 많이 헹군다.	196	88.3	24	10.8	2	0.9	2.87	.36
10. 건조시 옷걸이를 사용한다던가 펼쳐 채에 받힌다던가 손으로 구김을 잘 펴서 낸다.	121	54.5	94	42.3	7	3.2	2.51	.56
11. 벗어놓은 옷들은 세탁자가 혼자 모아서 세탁장소로 가져간다.	73	32.9	108	48.6	41	18.5	2.14	.70
12. 다마른 세탁물은 세탁자가 개어서 각자 서랍에 넣어준다.	177	79.7	38	17.1	7	3.2	2.77	.49
13. 다림질이 가능한 옷은 모두 다린다.	81	36.5	121	54.5	20	9.0	2.28	.62
14. 다림질을 할 때 옷의 구석구석 까지 구김살이 없도록 세심히 다린다.	125	56.3	93	41.9	4	1.8	2.55	.53
15. 푸새가 가능한 것은 모두 푸새를 한다.	80	36.0	122	55.0	20	9.0	2.27	.62
합 계							2.35	.22

3點, 總點數 45點만큼에 37.55點(表 2 參照)이며 총점수 분포는 15~25 점대가 0.5%, 26~35 점대가 20.2%, 36~45 점대는 79.3%로 대부분 높은 점수대에 편중되어 있어 都市家庭의 洗濯管理에 대한 要求水準이 까다롭고 基準이 엄격하며, 無計劃하고 습관적으로 行하고 있으며, 洗濯管理面에 대한 協助가 극히 적으며 필요이상의 에너지 시간 물자가 소모되

고 있는 면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sup>2)</sup>. 문헌상의 연구에서도 要求水準이 높을수록 노동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며 반대로 要求水準이 낮을수록 적게 소모된다고 하였다<sup>18)</sup>.

이와같은 洗濯管理行動과 家族環境變因 즉 家族數, 막내子女의 年齡, 主婦의 年齡, 主부의 學歷, 收入, 住居形態에 따른 差의 檢證을 한 結果 다음과 같다.

표 3. 6 가지 독립변인에 따른 세탁관리행동, 세탁시설설비, 세탁관리시간의 差

		세탁관리행동				세탁시설설비				세탁관리시간			
		M	S.D	F	P	M	S.D	F	P	M	S.D	F	P
가족수	2명 이하	36.63	3.42	0.8343	N.S	18.88	1.25	0.768	N.S	0.98	0.44	4.325	0.005
	3~4명	37.69	4.01			20.12	2.46			1.25	0.51		
	5~6명	37.60	3.26			19.81	2.31			1.43	0.64		
	7명 이상	37.30	2.88			19.87	2.29			1.63	0.60		
막내子女的연령	만 0~2세	36.70	4.33	0.936	N.S	20.20	2.68	2.178	N.S	1.49	0.84	2.732	0.03
	만 3~5세(학령전)	37.44	3.33			20.50	2.09			1.20	0.43		
	만 6~11세(국민학생)	37.64	3.28			19.54	2.40			1.49	0.61		
	만 12세이상(중학생이상)	38.20	3.35			19.49	2.16			1.44	0.60		
	없다	36.75	2.22			19.00	1.63			1.00	0.41		
주부의연령	만 25세 이하	36.71	4.96	1.307	N.S	18.86	3.48	2.757	0.04	1.50	0.71	1.336	N.S
	만 26~30세	35.93	3.27			19.57	2.59			1.56	1.00		
	만 31~40세	37.74	3.45			20.28	2.29			1.31	0.57		
	만 41세 이상	37.63	3.34			19.43	2.14			1.46	0.56		
주부의학력	국졸이하	37.45	2.67	0.024	N.S	18.79	2.13	12.449	.000	1.53	0.66	6.167	0.0005
	중졸	37.52	3.90			18.45	1.85			1.65	0.73		
	고졸	37.53	3.25			20.30	2.31			1.38	0.56		
	전문대졸 이상	37.65	3.77			20.70	2.15			1.15	0.48		
총수입	30만원 미만	36.73	4.14	1.187	N.S	18.08	2.04	9.391	.000	1.62	0.71	2.061	N.S
	30~40만원 미만	37.27	3.50			20.02	2.25			1.34	0.56		
	40~55만원 미만	37.93	2.95			20.15	1.95			1.42	0.54		
	55~70만원 미만	38.10	3.49			20.55	2.23			1.23	0.63		
	70만원 이상	38.00	2.91			20.91	2.49			1.38	0.62		
주거형태	아파트	37.65	3.85	0.019	N.S	20.90	1.74	5.112	.007	1.27	0.54	1.071	N.S
	단독주택	37.54	3.33			19.60	2.51			1.43	0.62		
	연립주택	37.52	3.65			19.90	1.60			1.36	0.62		

\*\*\* p < .001

\*\* p < .01

\* p < .05

6 가지 家族環境變因과 全體 洗濯管理行動과의 F-test 結果 有意差가 認定되지 않았다(表 3 參照). 洗濯管理行動 問項間에 相互影響을 통제해서 보기 위해 問項別로  $x^2$  檢證을 해본 結果 「다림질을 할 때 옷의 구석구석까지 구김살이 없도록 세심히 다린다」 라는 항목이 主婦의 年齡에서  $P < .01$  水準으로 有意差가 인정되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가설 1은 否定되었으며 6 가지 家族環境變因이 洗濯管理行動에 影響을 미치는 중요한 變因이 아닌 것으로 思料된다. 이는 主婦가 처한 家族環境變因에 따라서 主부의 家庭管理行動에 別다른 影響을 미치지 않는다<sup>9)</sup>는 장명옥의 研究結果와 一致하는 것이다.

그러나 家族環境變因에 따른 洗濯管理行動의 傾向을 보면, 家族數가 3 名이상인 경우 家族數가 많을수록, 막내자녀의 年齡이 0~2 歲로 가장 어린 경우 洗濯管理行動 點數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家族數가 많고 子女가 어린 경우 洗濯管理量이 대부분 많고로 洗濯管理에 대한 基準이 까다롭지 않아 대충 처리하며 다른 家族의 協助를 받고 있는 傾向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反面에 막내子女의 年齡, 收入이 높아질수록 洗濯管理行動 점수가 다소 높아져서 洗濯管理에 대한 基準이 엄격하고 要求水準이 까다로우면서도 계획성이 없고 家族의 協助가 적음을 알 수 있다.

## 2) 洗濯施設設備

洗濯施設設備의 尺度平均은 1.99 점(총점수 30 점만점에 19.9 점(표 4 參照))이며 총점수 분포는 0~16 점대가 16%, 17~23 점대가 88.2%, 24~30 점대가 5.0%로 중간점수대에 편중되어 있다<sup>2)</sup>.

이러한 洗濯施設設備에 影響을 미치는 家族環境變因을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表 3 參照).

家族數, 막내子女의 年齡面에서 볼때 家族數 3~4 名, 막내子女의 연령이 만 3~5 歲인 경우가 洗濯施設設備 점수가 다소 높았고 家族數 2 名이하, 子女가 없는 경우가 洗濯施設設備 點數가 낮은 傾向을 나타내며 有意差는 認定되지 않았다. 家族數와 막내子女의 年齡은 洗濯物의 量, 頻度, 洗濯時間을 좌우하는 要因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變因들이 洗濯施設設備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들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合理的인 洗濯管理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主婦의 年齡面에서는 30 代인 경우가 洗濯施設設備 점수가 높고 25 歲이하인 경우는 낮으며  $P < .05$  水準

에서 有意差가 인정되었다.

學歷, 收入面에서는 學歷, 收入이 높아질수록 洗濯施設設備 점수가 높았으며 두 變因 모두에서  $P < .001$  수준으로 有意差가 높은 것으로 檢證되었다. 이는 教育을 받은 主婦의 경우 洗濯管理를 좀더 合理的이고 能率的으로 하기 위해 洗濯施設設備의 重要性을 알고 좀 더 잘 갖추고 있으며 家庭經濟가 안정되어야 洗濯施設設備도 갖추게 되는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住居形態面에서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順으로 洗濯施設設備 점수가 높아져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主婦들이 洗濯施設設備를 더 잘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 < .01$ ).

이상과 같이 볼때 主婦의 年齡, 學歷, 收入, 住居形態의 4 가지 家族環境變因이 洗濯施設設備에 影響을 미치는 變因으로 檢證된 바 가설 2 는 部分的으로 肯定되었다.

## 3) 洗濯管理時間

1 日 家事勞動時間 6 時間 51 分(育兒제외) 중 洗濯管理時間은 1 時間 36 分(다림질시간 14 分 포함) 소모하고 있어 家事勞動가운데 많은 時間을 소모하고 있었다<sup>2)</sup>.

이러한 洗濯管理時間에 影響을 미치는 家族環境變因을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表 3 參照).

家族數面에서는 家族數가 增加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洗濯管理時間이 增加함을 보였고  $P < .01$  水準에서 有意差가 認定되었다.

막내子女의 年齡面에서는 0~2 歲인 경우와 國民學生인 경우가 1.49 時間으로 가장 많고 子女가 없는 경우가 1 시간으로 가장 적었으며  $P < .05$  수준에서 有意差가 認定되었다.

主婦의 年齡面에서는 有意差가 認定되지 않았으나 26~30 歲가 1.56 時間인데 비해 31~40 歲가 1.31 時間으로 年齡이 낮은 경우에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傾向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子女의 연령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思料된다.

主婦의 學歷面에서는 중졸이상인 경우 學歷이 높아질수록 洗濯管理時間이 감소함을 보이며  $P < .001$  水準에서 有意差가 認定되었다. 이는 教育을 받은 主婦일수록 計劃的 能率的인 洗濯管理로 洗濯管理時間을 절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收入面에서는 有意差가 認定되지 않았으나 30 만원



표 4. 세탁시설 설비의 분항별 반응 및 적도평균

(N = 222)

	언제나그렇게 한다		그렇게 할때도있고 안 할 때 도 있다		언제나그렇게 하지 않는다		M	S.D
	f	%	f	%	f	%		
1.세탁장소	다용도실또는실내세탁장		욕 욕 탕		욕 외 수도 가		1.97	.65
	43	19.4	130	58.6	49	22.1		
2.세탁장크기	1 평 이 상		0.5평~1평미만		0.5 평 미 만		2.44	.60
	109	49.1	101	45.5	12	5.4		
3.세탁작업대	입식작업대		디딤대등을깔고앉는형태		쪼그리고앉는형태		1.19	.46
	6	2.7	31	14.0	185	83.3		
4.세탁기	전자동세탁기		2조식세탁기		없 다		1.70	.67
	27	12.2	102	45.9	93	41.9		
5.급수상태	종 다		보 통 이 다		나 썩 다		2.72	.48
	163	73.4	56	25.2	3	1.4		
6.배수상태	164	73.9	54	24.3	4	1.8	2.72	.49
7.건조장소	욕외에따로마련된건조대		욕 외 빨 래 줄		실내,대문밖등적합치않은곳		2.19	.50
	53	23.9	159	71.6	10	4.5		
8.빨래를 널을 때 빨래함지를 놓는 장	입식 이동대		입식 고정대		없 다		1.52	.71
	28	12.6	59	26.6	135	60.8		
9.세탁장소와 건조장소의거리	가 깎 다		보 통 이 다		멀 다		2.36	.56
	88	39.6	125	56.3	9	4.1		
10.다 리 미 대	입식다리미대		기존가구등을이용한형태		없 다		1.06	.31
	4	1.8	6	2.7	212	95.5		
	합		계				1.99	.23

미만의 低所得家庭에서는 洗濯管理時間이 1.62時間인데 비해 55~70만원 미만의 家庭은 1.23時間으로 差異를 보였는데 이는 所得이 높은 家庭일수록 洗濯施設設備를 좀 더 잘 갖추어서 時間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住居形態面에서도 有意差가 認定되지 않았으나 단

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順으로 洗濯管理時間이 감소되는 경향으로 洗濯施設設備에서와 비슷한 추세로 보인다. 이는 洗濯施設設備가 좀 더 갖추어져 있으므로 時間이 절감되고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이상과 같이 家族環境變因中 家族數, 막내子女의 年齡, 主婦의 學歷이 洗濯管理時間에 影響을 미치는 變

因으로 分析되었으며 가설 3도 部分的으로 肯定되었다.

### 要約 및 提言

本 研究는 都市家庭의 洗濯管理 즉 洗濯管理行動·洗濯施設設備·洗濯管理時間에 영향을 미치는 家族環境變因을 分析하여 좀 더 合理的이고 能率的인 洗濯管理의 方向을 모색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그리하여 6가지 家族環境變因 즉 家族數, 막내子女의 年齡, 主婦의 年齡, 學歷, 收入, 住居形態를 獨立變因으로 하고 洗濯管理 즉 洗濯管理行動, 洗濯施設設備, 洗濯管理時間을 從屬變因으로 하여 그 差의 檢證을 시도하였다.

研究方法는 서울에 居住하는 主婦를 對象으로 222部の 質問紙에 대한 應答을 中心으로 分析하여 평균, 표준편차, 백분비를 算出하고  $x^2$ , F-test 檢證을 하여 處理하였다.

그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洗濯管理行動과 6가지 家族環境變因과의 F-test 結果 有意差가 認定되지 않아 가설 1은 否定되었다. 부연하면 家族數, 막내 자녀의 연령, 主婦의 年齡, 主婦의 學歷, 收入, 住居形態의 6가지 家族環境變因이 洗濯管理行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變因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洗濯施設設備과 6가지 家族環境變因의 F-test 結果 家族數, 막내子女의 年齡에서는 有意差가 認定되지 않았고 主婦의 年齡은  $p < .05$  수준에서, 主婦의 學歷 收入은  $p < .001$  수준에서, 住居形態는  $p < .01$  수준에서 有意差가 認定되 가설 2는 部分的으로 肯定되었다. 그러므로 主婦의 年齡, 主婦의 學歷, 收入의 3가지 家族環境變因이 洗濯施設設備에 영향을 미치는 變因으로 分析되었다.

洗濯管理時間과 6가지 家族環境變因과의 F-test 結果 主婦의 年齡, 收入, 住居形態에서는 有意差가 認定되지 않았으며 家族數는  $p < .01$  수준에서, 막내子女의 年齡은  $p < .05$  수준에서, 主婦의 學歷은  $p < .001$  수준에서 有意差가 認定되어 가설 3도 部分的으로 肯定되었다. 그러므로 家族數, 막내子女의 年齡, 主婦의 學歷은 洗濯管理時間에 영향을 미치는 家族環境變因으로 分析되었다.

이상의 結果로 볼 때 都市 主婦들의 洗濯管理行動은 主婦가 처한 家族環境變因에 따라 별다른 差異를 볼 수

없었다. 이는 洗濯物의 量이나 洗濯의 頻도가 분명 家族環境變因에 따라 달라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關係없이 습관적으로 행해지며 구태의연한 思考와 行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아울러 洗濯管理行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變因의 모색이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洗濯施設設備面에서 볼 때 6가지 家族環境變因中 主婦의 年齡, 主婦의 學歷, 收入, 住居形態의 4가지 變因은 有意差가 認定되고 家族數, 막내子女의 年齡의 2가지 變因은 有意差가 認定되지 않음을 미루어 볼 때 家事勞動量이나 必要度에 따라 家庭에 필요한 施設設備들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 家庭의 社會 經濟的인 여건에 따라 洗濯施設設備들 갖추는 實情이므로 効率的인 洗濯管理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思料된다.

洗濯管理時間에 영향을 미치는 家族環境變因으로서 는 家族數, 막내子女의 年齡, 主婦의 學歷등이 分析되었다. 이는 洗濯管理가 家族數와 막내子女의 年齡을 고려하여 計劃되고 행해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教育을 통하여 보다 더 効率的인 洗濯管理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부연하면 洗濯管理를 함께 있어 家族數나 막내자녀의 연령등과 같은 家族의 構成에 따라 計劃하고 행하도록 하며 經濟的 여건의 許容에서 뿐 아니라 세탁관외의 올바른 理解로 시설설비의 重要性을 알고 갖추음으로서 個人的 資源의 절감을 가져오고 보다 높은 教育을 통하여 効率的인 洗濯管理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다른 人的資源의 개발에 주력하므로써 家庭生活의 質的인 向上을 도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한명순 : 주부의 가사노동관리에 관한 연구, 이대 가정관리연구, 10호, 1980.
- 2) 이정우·최동숙 : 도시가정의 세탁관리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1권, 3호, 1983, pp. 91~95.
- 3) 문숙재 :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에 대한 의식과 실태조사,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논총, 37호, 1981, p. 363.
- 4) Weaver, E. Knowles : Research in Home Laundering,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43, No. 3, 1951, p. 193.

- 5) 윤복자 : 가사노동과 작업시간, 대한가정학회지, 13권 2호, 1975, pp. 59~77.
- 6) 서혜경 : 아파트의 세탁 및 건조장소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가정관리연구, 창간호, 1970.
- 7) 권선애 : 가정의 세탁기 활용을 중심으로 한 세탁관리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1980.
- 8) Johnston, B. Jane : *Home Laundering - A Study of Equipment and Procedures-*,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50, No. 1, 1958.
- 9) 장명옥 : 가정관리연구, 장명옥교수회잡논문집, 1976, pp. 57~58, p. 63, p. 77, p. 120.
- 10) Gross, Crandall & Knoll :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Prentic Hall, Inc., 4th Ed., 1973, p. 272, p. 283.
- 11) Steidle, R. and Bratton, E.C. : *Work in the Home* 1972, pp. 42~44.
- 12) 이기숙 : 주부의 가사노동 선호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환경적 변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20권 4호, 1982, p. 131.
- 13) 서영숙·조필교 : 가족성원간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4권 4호, 1976, p. 109.
- 14) 장명옥 : 가정관리학, 교문사, 1984, p. 174.
- 15) Walker, E. Kathryn & Margaret, E. Woods, *Time Use : A Measure of Household Production of Family Goods & Service*, AHEA, 1976, pp. 185~188.
- 16) 최재석 : 한국가족연구, 민중서관, 1975, p. 6.
- 17) 도시가계연보 : 1980,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1, 6, p. 73.
- 18) 문숙재 : 한국가정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한 "가정분석론", 대한가정학회지, 21권 4호, 1983, p. 156.

